



올리브영
3개 분기 연속
매출 1.5조 달성
니



Life

국내 면세점
개별 관광객 전략
실적 살렸다
L2



세계 정상 선 '천만뷰' 태권소년... 자유폼새 대명사 꿈꾼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변재영 선수

한 소년이 홍콩에서 태극기를 휘날렸다. 공중을 가르며 몸을 던졌고, 음악 위에서 절도 있는 발차기가 섬 없이 이어졌다. 회전과 도약, 고난도 기술이 맞물린 자유폼새 무대가 끝나자 객석의 시선도 함께 멈췄다. 경기 영상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타고 퍼져나가며 '천만뷰'를 넘어섰다. 2024년 홍콩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자유폼새 17세 이하 개인전 우승자 변재영 선수 이야기다. 온라인에서는 '역대급 태권신동', '각성한 K-중딩', '힘든 시기에 국뽕이 차오른다' 등의 찬사가 이어졌다. 당시 변 선수는 영화 위대한 쇼맨 OST를 편곡한 음악에 공중돌기 중 8번의 발차기 기술 등 다양한 동작을 구성했다. 특히 변 선수의 주특기인 '아크로바틱' 기술을 선보이면서 특별한 재능을 뽐냈다.

세계 정상에 선 열일곱 소년은 그 순간을 "기쁘면서도 복잡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 '내가 나라를 대표해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태극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저 자신을 빛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홍콩서 태극기 든 열일곱... "한국을 빛내 줘서 고맙다"

홍콩 세계선수권 우승은 변 선수에게 단순한 메달 이상의 의미였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태극기를 달고 무대에 올랐고, 결국 세계 정상에 섰기 때문이다. 우승 후 태극기를 들었던 순간을 묻자 그는 "기쁘기도 했는데 부담감도 공존했다. 태권도 자체가 한국 문화라는 생각이 강해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승 직후 밀려온 감정은 '행복'이었다고 했다. "제가 나라를 빛냈다는 느낌도 들었고, 태극기를 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다."

세계선수권 경기 영상이 '천만뷰'를 넘기며 예상치 못한 유명세도 찾아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을 묻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빛내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 한국을 대표했던 만큼 인정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다.

변 선수의 태권도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유독 좋아했던 아이였고, 초



변재영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선수. /업비트

홍콩 세계태권도품새대회 정상 올라 경기영상 SNS·유튜브 타고 천만뷰 돌파 다문화가정 부담 딛고 태극기 들어 행복

우연히 본 격파영상에 국가대표 꿈 키워 터치 스와이프 등 고난도 기술로 승부수 화려함보다 무대 즐기는 태도 '필살기'

선수생활 초기, 착지 실수로 어려움 겪어 부상 극복하고, 성적으로 증명하고 고파

대중적인 종목 아니지만 매력 보여줄 것 이름 붙일 수 있는 기술 만드는 것 '목표'

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태권도장을 찾았다.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았지만, 변 선수에게엔 발차기가 더 큰 재미였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초등학교 3~4학년 무렵 우연히 본 격파 영상이었다. 공중에서 몸을 날리며 기술을 구사하는 장면은 어린 변재영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변 선수는 "그 영상을 본 시기부터 태권도가 너무 진지하게 좋아지게 됐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나라를 대표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품었다.

◆'터치 스와이프' 승부수... "긴장보다 기대가 더 컸다"

변 선수의 자유폼새는 유독 과감하다. 두 번째 나간 자유폼새 국가대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변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되기 위해 공식 대회에서 보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인 '터치 스와이프'와 '게이너 스와이프'를 과감하게 선택했다. 물론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처음엔 부담도 되고 무섭기도 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나만 성공했을 때의 쾌감을 생각하면서 연습에 집중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늘 경기 장면을 그렸다고 했다. 변 선수는 "경기장에서 저만 그 기술을 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다.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 최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컸다"며 "코치님들이 항상 '너밖에 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해 주셨다. 그래서 긴장보다 기대가 훨씬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즐기는 천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변 선수는 완벽하게 태권도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본인이 꼽는 필살기도 화려한 기술이 아닌 무대를 즐기는 태도다. 그는 "특별히 엄청 잘하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대신 무대를 즐기는 게 제 필살기"라고 웃었다.

화려한 경기 뒤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시간도 있었다. 그 시절 변 선수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에는 '아파도 참고 해라'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변 선수는 2024년 홍콩 세계품새선수권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던 시기를 선수 생활 중가



tvN '유퀴즈'에 출연한 변재영 선수. /tvN

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오직 '국가대표 되기만 믿자'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한다. 변 선수는 "큰 부상은 쉬었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잔부상은 계속 참고 운동해야 하잖아요"라며 준비하면서 잔부상이 많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선수 생활 초기, 첫 대회에서 4등을 한 뒤 다음 대회에서 준비하던 중 몸을 풀다가 착지 실수로 탈구를 겪었다. 그는 "그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부모님도 다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보이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변 선수는 경기 포기 각서를 제출한 뒤 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만의 부담 해결 방법은 결과다. 국가대표가 되고, 대회에서 1등에 이름을 올리면서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모님께 보답하는 방법도 결국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자유폼새 하면 변재영"...소년의 꿈은 아직 진행 중

"자유폼새가 대중화된다면 피겨 하면 김연아, 축구 하면 손흥민처럼 자유폼새 하면 변재영이 나오는 미래가 오면 좋겠다."

자유폼새는 아직 대중적인 종목이 아니다. 변 선수 역시 은퇴 전까지 완전한 대중화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다만 꿈은 분명했다.

그는 "겨루기처럼 싸움 개념의 태권도가 아닌 다른 태권도의 매력을 보여 주고 싶다"며 사람들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터치다운 라이즈'라는 기술은 꼭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는 기술로 만들고 싶다는 그다.

홍콩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열일곱 소년은 이제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자유폼새라는 종목의 가능성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자유폼새를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변재영이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순간이 올까. 변재영 선수는 오늘도 그 순간을 위해 태극기를 등에 지고, 누구보다 높이 뛰어오르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17세 이하 남자 프리스타일 우승자 변재영 선수의 경기 모습. /세계태권도연맹



▲UFC 최두호, 1년5개월 만의 복귀전서 '코리안 킬러' 산토스에 TKO승
▲이승민, G4D 오픈 첫 출전에 우승...장애인 골프 커리어 그랜드슬램 /사진 뉴시스

▲"떠날 때가 됐다"...레반도프스키, 올 시즌 끝으로 바르사와 작별
▲"선수·팬 모두 위험"...월드컵 앞두고 제기된 '열사병 주의보'

▲호날두, ACL2 결승전 패배 후 은메달 시상식 '노쇼'
▲방탄소년단, 월드컵 하프타임 쇼 첫 헤드라이너...다음 종착지는 '슈퍼볼' 될까